

# 인지도를 이용한 한·미 대학캠퍼스 이미지 차이 연구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University Campus Images  
between Korea and America Using Cognitive Maps

정지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사지도교수 (제1연구자)  
김홍규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주요단어: 대학캠퍼스, 이미지, 인지도, 기숙사, 통학생

##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분석대상 캠퍼스 개요
- IV. 실증분석
  - 1. 연구방법
  - 2. 일반특성 분석결과
  - 3. 인지도 분석결과
- V. 결론

## I. 서론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학캠퍼스는 학습-생활 공동체(Living-Learning Community)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영국의 전통적 캠퍼스 설계를 바람직한 것(Collegiate Ideals)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상향을 바탕으로 많은 미국의 대학들 특히,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들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을 학교 기숙사에 수용하는 기숙사 중심의 학교 형태(Residential College)를 띠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교수 간의 보다 밀접한 커뮤니티의 수립, 대학 구성원들 간의 학문적, 사회적 가치관의 공유, 단순한 직업 교육이 아닌 개성과 문화를 가진 대학 정신(Collegiate Spirit)의 계발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Turner, 1984).

반면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몇몇 대학을 제외하곤 대부분 기숙사 시설이 부족한 대신, 대중교통의 접근이 쉽고, 인구유동이 많은 마치 쇼핑센터와 같은 입지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통학생 중심의 학교(Commuter's College)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이상적 문화와 가치의 생산이라는 측면보다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직업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캠퍼스의 설계는 그 대학이 표방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이념과 비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해방 이후 한국의 대학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부 졸업생을 빨리 키우는 데 주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양 교육과 대학 공동체의 형성이 경시되어왔다. 남정

걸(1995)은 해방 후 우리나라의 대학시설은 최초 소수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발족하였다가, “대학교육의 수요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대하는 학생인구를 수용하기에 급급하여 이렇다 할 마스터플랜이 없이 그때그때 제한된 공간에 무질서하게 건물을 증축한 캠퍼스” 들로부터 출발하였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후에 정부나 기업 등의 지원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 마스터플랜에 따라 새로운 대학을 세우거나, 기존 대학을 이전하는 경우와 기존 캠퍼스를 본교로 삼고 새로운 부지에 분교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국내 대학들은 대부분 한정된 부지 위에 급속하게, 그리고 불안정한 마스터플랜 아래 학교의 증축에만 주력하였다. 또한 학교 증축의 방향이 대부분 학생의 최대 수용이 목적이었던 바, 기숙사보다는 강의실을 확대하고, 주변에 대중교통을 끌어들이며 통학을 편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발전되어 온 한국과 미국의 대학들 중, 기숙사 중심의 미국 대학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스탠포드(Stanford)대학과 통학생 중심의 한국 대학으로 서울의 연세대학교를 선정하여 각각의 대학 캠퍼스를 그 재학생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케빈 린치(Kevin Lynch)의 인지도(Cognitive Map) 기법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두 대학의 인지상황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 향후 캠퍼스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정책적 대안제시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원래 인지도는 심리학자인 Edward Tolman이

1930년대 쥐가 미로를 인식하고 배우는 과정을 연구하여, 쥐들이 미로에 대한 내적표상(internal representation)을 갖는다고 주장했고, 이를 인지도라 명명하면서 연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Downs와 Stea(1973)는 이러한 인지도의 작성과정을 우리가 주변의 공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의 상대적 위치와 속성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지각), 이를 저장하고, 회상하고, 해독하는(인지) 일련의 심리학적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지도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 Kitchin(1994)은 학문 제 분야에서의 인지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매우 자세하게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인지도라는 용어는 Abstract Map, Cognitive Configuration, Mental Image, Mental Map, Place Schemata, Spatial Representations, Spatial Schemata, Topological Schemata 등 약간의 의미 차이를 가진 약 20여 개의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정의에 있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인지도 그 자체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지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심리학에서 출발하여, 지리학에서 다양하고 심도 깊은 발전이 있었으며, 건축학 및 도시공학, 도시설계적 측면에서는 린치(Lynch, 1960)의 기념비적 연구 이래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사회학, 고고학, 정치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지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관광, 마케팅, 도서관학 등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한 적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및 설계 분야에서의 기념비적 연구라 할 수 있는 린치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의 거주민들에게 그 도시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스케치 맵(Sketch Map)를 그리게 하고, 더불어 가장 인상적인 요소, 주된 통근로 등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통로(Paths), 가장자리(Edges), 지구(Districts), 결절점(Nodes), 지표물(Landmarks) 등 5가지 요소를 통해, 전문가의 이미지가 아닌 도시 거주민들의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이러한 인지도 기법은 도시에서의 길 찾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물론 도시 거주민이 중요하게 느끼는 도시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린치의 기법은 그가 사용했던 표본의 크기, 방법론상의 문제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를 원용하거나 변형시킨 연구를 지속해 왔고, 다양한 대상 지역과 피실험자를 활용하여 발전되어 왔다.

인지도 연구는 공간적 문제의 해결(Spatial Problem Solving)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Golledge와 Stimson(1997)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인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우리가 주민들이 가진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선호, 태도 등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된다면, 주민들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획과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환경에 대하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를 이용하여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기 린치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은 어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이미지를 밝혀내려는 시도를 해왔고, 그 이후 보다 한정된 지역, 보다 한정된 설문자(거주민, 관광객, 학생 등)들을 대상으

로 그 지역의 이미지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그중 Zmudzinska-Nowak (2003)의 연구는 폴란드의 Tychy라는 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인식하는 도시의 모습을 비교하였고, Jutla(2000)를 비롯한 여러 연구들은 관광지에서 그곳의 관광객과 거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지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했다. 이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로서는, Blaut(1999)는 지역 근린생활권 단위의 미소 규모 연구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스케치맵을 통하여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관계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지도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커뮤니티를 근린생활권 단위로 파악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견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 근거하여, Halseth(2000)는 KIDSMAP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인지도를 얻고, 이를 잠재적인 근린생활권 계획의 도구로 삼으려 하였다. 즉 어린이들은 근린생활권에서 주위의 이웃, 학교와 상호 작용하며 생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근린생활권은 어린이들의 양육이 주요 관심이라고 볼 때, 설계자들이 어린이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의 인지도 연구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었는데, 그중 대학 캠퍼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특히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에 대한 연구가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지범 등(2004)은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분석을 통하여 통학생 위주 대학에서의 인지양상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이우상·정재용(2005)은 신촌, 연세대학교 주변 가로환경에 대한 인지도 분석을

수행하여 대학가에 걸맞는 문화시설의 확충, 가로환경의 정비를 주장하였다. 또한 윤용우, 김영욱·박영기(2003)는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대상으로 공간구문론(Space Syntax) 방법과 인지도 방법을 병행하여 공간인식에 있어 공간깊이와 거리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를 대상으로 수행한 공간구문론의 분석방법과 인지도를 이용한 공간인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즉, 연세대학교와 같은 대상지의 경우에는 대상의 공간구조를 바탕으로 이에 따른 공간인지가 예측 가능함을 보여준 결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연구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캠퍼스 대상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은 한국을 대표하는 캠퍼스로서 자주 언급되는 대상지가 되곤 했다. 이는 연세대학교가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 이미지의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조하여, 케빈 린치의 인지도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연세대학교와 미국의 스탠포드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느끼는 대학의 모습을 분석하고 향후 각 지역의 공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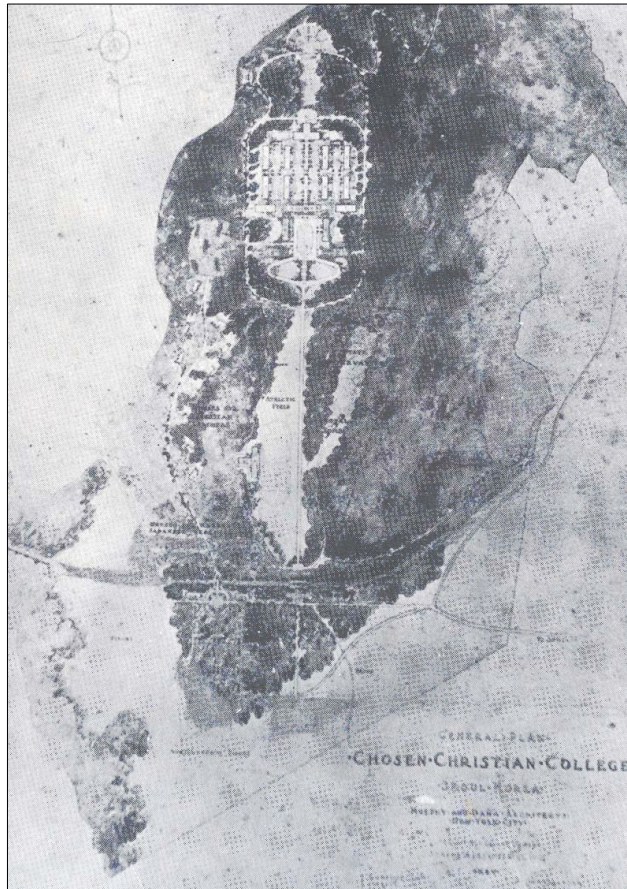
### III. 분석대상 캠퍼스 개요

연세대학교는 96만 1,634m<sup>2</sup>(약 30만 평)의 면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매년 받아들이는 신입생 정원은 4,000여 명 정도이며, 2005년 4월 당시에 재학 중인 학부생은 1만 9,101명이었다<sup>1)</sup>.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는 1915년 해외 선교사들의 도움을 얻어 서울 YMCA에서 “Chosun Christian College” 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개교하였다. 현재의 교지는 1917년 언더우드(John T. Underwood)의 기부금으로 구입하였고, 스티븐홀(문화재 사적 275호)의 완공과 함께 1920년에 이전한 것이다. 최초의 연세대학교는 서울 외곽에 위치하여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기숙사 학교의 전통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은 1917년 당시의 연세대학교 마스터플랜으로 외부로부터 분리된 사각형의 중정형태(Quadrangle)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각형태는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였던 모나스틱 퀘드랭글(Monastic Quadrangle)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학습-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기숙사 중심의 대학에서 주로 취하는 형태였다. 이후 해방을 맞이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연세대학교는 통학생 위주의 대학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연세대학교가 위치한 신촌 지역은 서울의 급격한 확장에 따라 서울의 주요 부심지역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는 주로 연세대학교와 주변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의 대학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신촌지역은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가로 발전하였다.

<그림 1> 1917년 연세대학교 마스터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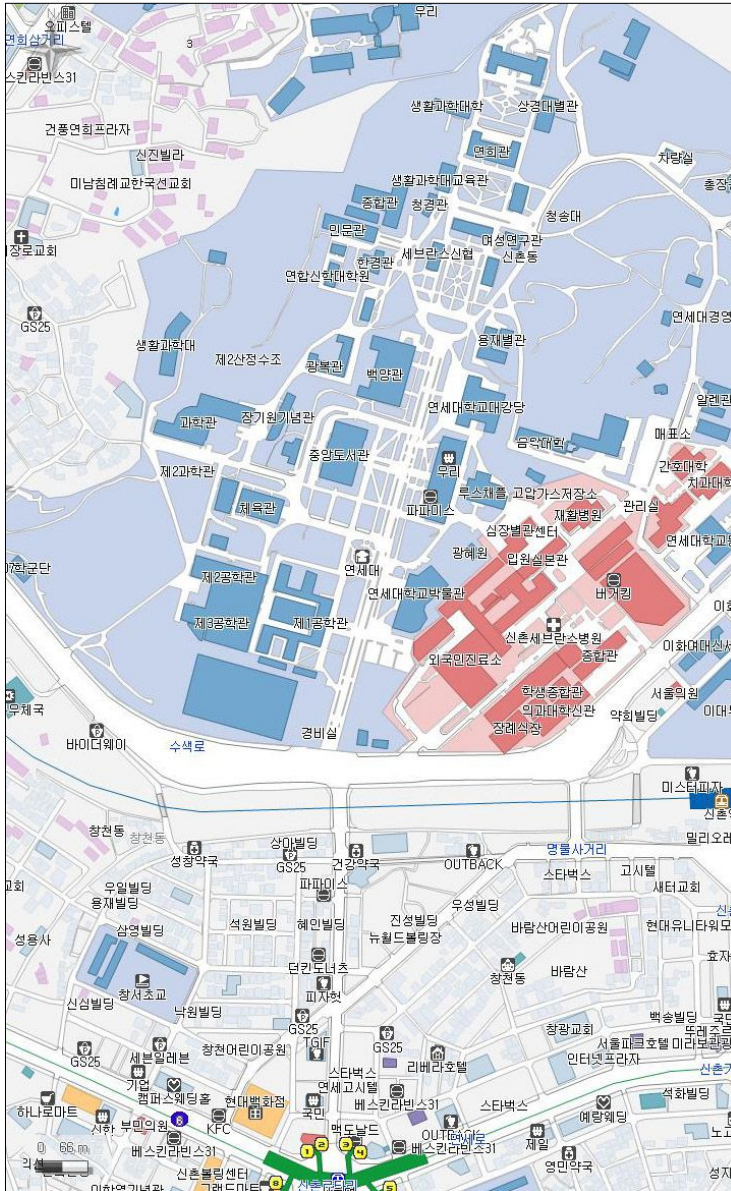


출처: 연세대학교, 2005. (연세춘추 70년 사진으로 본) 연세의 역사

<그림 2>는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을 나타내는 배치도이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이다. <그림 2>의 배치도에서 보듯이 연세대학교는 백양로를 중심으로 하여 몰(Mall)형 구조로 확장하였는데, 이는 주로 백양로를 따라 부지의 사용밀도를 높이는 방식과 외부로의 공간적 확장을 병행하면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기숙사 수용인원은

<그림 2>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의 배치도



출처: 국토포탈 웹GIS 이용, <http://www.land.go.kr> 2007. 11. 16. 접속

2006년 4월 현재 2,321명으로 전체 학부 재학생 1만 9,000여 명에 비교하면 수용률이 12% 정도에 불과하여, 전형적인 통학생 중심의 학교

(Commuter's College)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앞 통학로를 중심으로 수많은 학생 대상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 밖의 시설들도 연세대학교의 캠퍼스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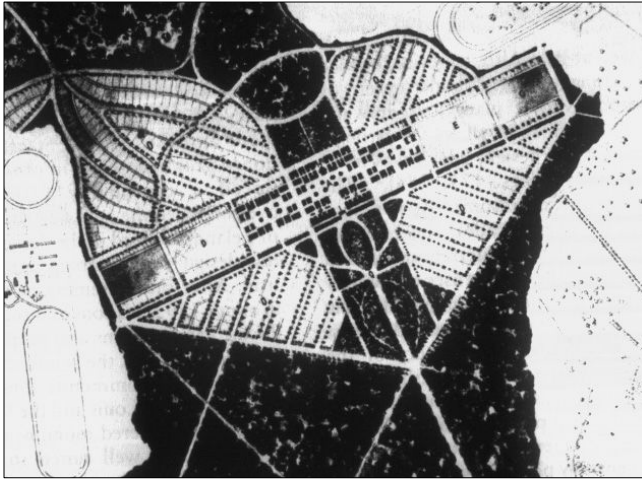
이와 같이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 신촌지역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교육 및 문화 관련 시설이 비교적 많이 집적되어 문화적 성장여력이 큰 지역이지만, 각종 소비·향락 문화, 혼잡 및 무질서한 공간 이용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스탠포드대학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남동쪽으로 60km 근교, 실리콘밸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팔로 알토(Palo Alto)시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면적은 8,180 에이커이며, 이 중 약 2,300에이커(약 280만 평)를 스탠포드대학의 주 캠퍼스와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연구센터

(Stanford Linear Accelerator Center)가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학부 재학생은 6,576명으로 추정된다.<sup>2)</sup> 스탠포드대학은 19세기 미국 서부에

<그림 3> 1887년 스탠포드대학 마스터플랜



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며, 캘리포니아 주지사, 센트럴 피서픽 레일로드(Central Pacific Railroad) 사의 회장을 역임한 릴랜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가 그의 죽은 아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설립했다. 1886년 릴랜드 스탠포드는 당시의 저명한 건축가였던 프레드릭 올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를 고용하여 마스터플랜을 설계하도록 하였다.

올스테드의 초기 설계는 언덕들을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된 건물들로 구성된 작은 대학 캠퍼스의 모습이었으나, 릴랜드 스탠포드는 이를 거부하고, 평지 위에 보다 규격화되고, 엄숙하며, 웅장한 형태로 캠퍼스 설계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의 이러한 요구는 유럽의 건축양식에 영향받은 바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엄숙함과 형식주의가 그의 아들을 기념하는 데 보다 알맞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채택한 방법은 쿼드랭글(Quadrangle)의 도입이었다. 즉 <그림 3>의 1887년 마스터플랜과 같이 중앙에 거대한 사각형을 배치하고, 이 사각형을 향하여 길고 웅장한 팜 드라이브(Palm Drive)를 배치하여 보자르(Beaux-Arts)의 기념비적인 형식주의(Monumental Formalism)를 표방하였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향후 대학의 발전에 따라 동서쪽으로 같은 형태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 같은 형태

의 쿼드랭글의 확장까지 고려한 설계였다(Turner, 1984). 이후 스탠포드대학은 초기 마스터플랜을 상당 부분 유지했으나, 초기 계획과 같이 추가적인 쿼드랭글을 통한 확장은 일어나지 않았다.

스탠포드대학은 전형적인 기숙사 중심의 학교(Residential University)로서, 2006년 현재, 약 6,130명의 학부생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의 약 95%이며, 나머지 5%는 외국이나, 다른 캠퍼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부생 전원이 대학 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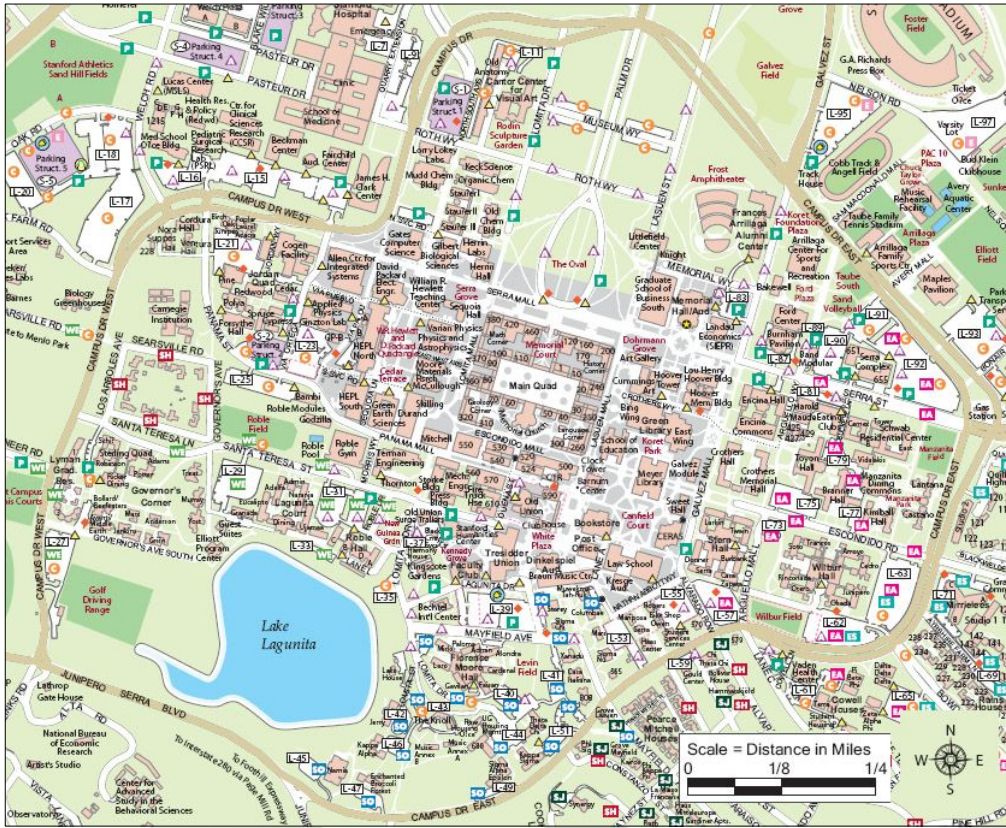
#### IV. 실증분석

##### 1. 연구방법

2) <http://www.stanford.edu/home/statistics>, 2006. 7. 9. 접속.

3) <http://www.stanford.edu/home/stanford/facts/campuslife.html>, 2006. 7. 9. 접속.

<그림 4> 스탠포드대학교와 그 주변의 배치도



출처: <http://maps.stanford.edu/>, 2006. 11. 16. 접속.

본 연구에서는 린치(1960)의 기본적인 방법을 원용하되, 그 대상지역을 각 대학교와 그 주변으로 한정하였고 피실험자들은 각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먼저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총 62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작성 실험을 2004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수행하였다. 인지도의 작성은 A4 용지에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에 대한 스케치맵을 그리게 하고, 자신들의 주된 통학로를 표시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하교 시 교통수단, 학교에 머무는 시간, 선

호 장소 및 비선호 장소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스탠포드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역시 무작위로 선택된 62명의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의 경우와 같은 설문을 2004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 2. 일반특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연세대학교 재학생의 성별, 학년, 계열 등의 일반 특성은 <표 1>과 같다. 거리 별로 거주지를 근거리(5km 이내), 중거리(서울시

<표 1> 연세대학교 조사대상자들의 일반특성(도수, %)

구분	내용	남	여	계
전공계열	인문	22(35.5)	9(14.5)	31(50.0)
	자연	17(27.4)	14(22.6)	31(50.0)
학년	1학년	19(30.6)	11(17.7)	30(48.4)
	2학년	9(14.5)	8(12.9)	17(27.4)
	3학년 이상	11(17.7)	4(6.5)	15(24.2)
	계	39(62.9)	23(37.1)	62(100.0)

<표 2> 연세대학교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와 교통수단(도수, %)

구분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	계
도보	10(16.1)	0(0)	0(0)	10(16.1)
버스	4(6.5)	5(8.1)	13(21.0)	22(35.5)
지하철	1(1.6)	10(16.1)	19(30.6)	30(48.4)
계	15(24.2)	15(24.2)	32(51.6)	62(100.0)

<표 3> 스탠포드 대학 조사대상자들의 일반특성(도수, %)

구분	내용	남	여	계
전공계열	미정	5(8.1)	6(9.7)	11(17.7)
	인문	17(27.4)	14(22.6)	31(50.0)
	자연	10(16.1)	10(16.1)	20(32.3)
학년	1학년	8(12.9)	10(16.1)	18(29.0)
	2학년	4(6.5)	3(4.8)	7(11.3)
	3학년	9(14.5)	9(14.5)	18(29.0)
	4학년	11(17.7)	8(12.9)	19(30.6)
	계	32(51.6)	30(48.4)	62(100.0)

내), 장거리(서울 근교)로 나누고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51.6%로 가장 많았고, 거리가 멀수록 지하철의 이용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거리 통학생은 주로 지방학

생들로서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통학생으로 연세대학교의 일반적 특성과 부합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한 스탠포드 학생 집단의 일반 특성은 <표 3>과 같다. 이들은 전원 학교 내 기숙

<표 4>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의 주요 인지요소(50% 이상)

인지요소	빈도수	인지도	구분
성산로	59	95.2%	Edge
백양로	58	93.5%	Path
연세로	58	93.5%	Path
공학원	54	87.1%	Region/Landmark
학생회관	53	85.5%	Region
도서관	52	83.9%	Region
공학관	49	79.0%	Region
신촌지하철	46	74.2%	Region
백주년기념관	45	72.6%	Region
본관	43	69.4%	Region
독수리빌딩	39	62.9%	Landmark
백양관	38	61.3%	Region
현대백화점	36	58.1%	Region
종합관	35	56.5%	Region
명물거리길	34	54.8%	Path
대학약국	34	54.8%	Landmark
본관길	33	53.2%	Path
대강당	33	53.2%	Region
창천교회 앞길	33	53.2%	Path
과학관	32	51.6%	Region
세브란스	32	51.6%	Region/Edge
연회관	31	50.0%	Region
약국길	31	50.0%	Path
창천교회	31	50.0%	Landmark

사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교 내에서 도보 혹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 기숙사는 Wilbur Hall(66%), Florence Moore(8%),

할 수 있으며, 지표물(Landmark)의 개념은 이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외부의 중요한 지표로서 인식하고 있는 건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스케치맵의 분석은 학생들이 그린 지도

Stern Hall(7%) 등으로 모두 메인 쿼드(Main Quad)에서 멀지 않은 학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외에도 Laguanita, Governor's Corner, Mirrielees, Manzanita-Park, Branner-Hall, Toyon 등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 3. 인지도 분석결과

#### 1) 스케치맵(Sketch Map) 분석 결과

본 연구와 같이 학교와 그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있어서도 린치(1960)의 5요소 분석방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기서 지구(District)의 개념은 하나의 거대 건물(백화점, 도서관 등)이나 단일 성격의 지역(병원, 쇼핑센터 등)에 적용

4) 린치(1960)의 연구에서 지구(District)의 개념은 관찰자가 그 지역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Enter "Inside Of") 느끼는 동질

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지도에 표시된 요소들의 빈도수를 구하고, 이 요소들을 전체 응답자의 수로 나누어 인지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각 캠퍼스에서 주로 인식된 요소들 중 50% 이상의 인지도를 얻은 것들을 <표 4>와

양로(93.5%)와 대부분의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는 신촌지하철역에서 연세대학교까지의 연세로(93.5%)를 많이 표현하였다. 교내 건물로서는 공학원(87.1%), 학생회관(85.5%), 도서관(83.9%) 그리고 공학관(79.0%)이 많이 인지되었다. 또한

연세대학교에 붙어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도 최근 20층을 증축하여, 강력한 지표물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조사 결과 특히 공대 건물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공대가 연세대학교 입구에 위치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히 공학원의 경우에는 입구에 위치한 대

단위의 건물로서 지구(District)의 특성과 지표물(Landmark)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교내의 백주년기념관과 교외의 독수리빌딩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건물들의 특징은 그 외관이 주변 환경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이 실제로 출입하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세대학교를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알려져 왔던 본관(언더우드관, 문화재 사적 276호, 74.4%)이 앞에 제시된 건물들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정문 부근을 가장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표 5> 스탠포드대학교와 그 주변의 주요 인지요소 (50%이상)

인지요소	빈도수	인지도	구분
Main Quad	56	90.3%	Region
Green Library	44	71.0%	Region
Wilbur Hall	41	66.1%	Region
Meyer Library	39	62.9%	Region
Stern Hall	39	62.9%	Region
Escondido RD	35	56.5%	Path
The Oval	35	56.5%	Landmark
Tresidder Union	35	56.5%	Region
Palm Drive	33	53.2%	Land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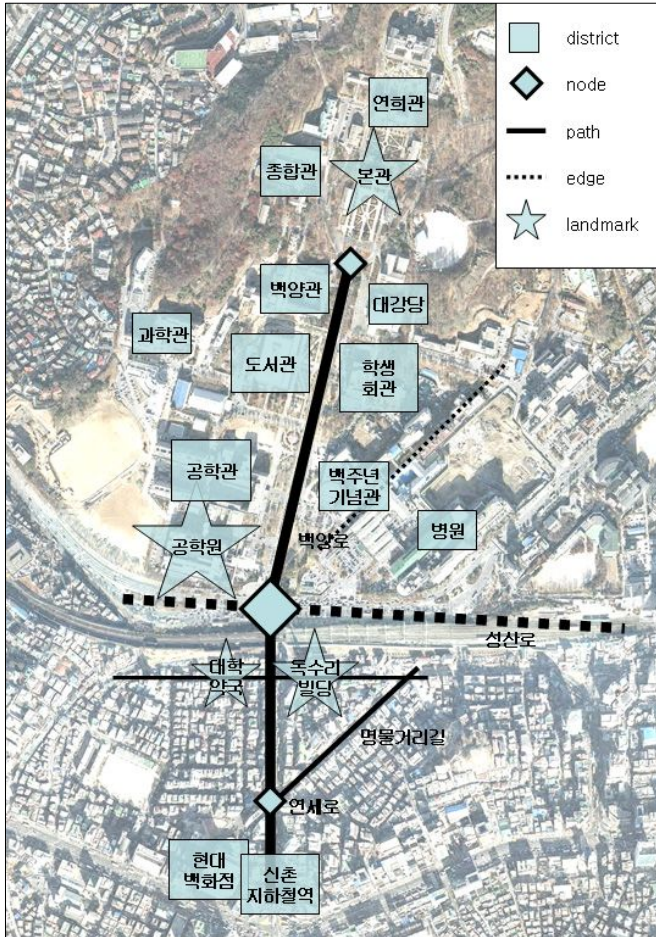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4>와 같이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의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 사이에 가장 크게 인식되고 있는 린치의 요소는 가장자리(Edge)로서,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을 경계짓는 성산로(95.2%)로 나타났다. 물론 성산로는 통로로도 인식될 수 있으나, 그 폭이 대단히 넓은 편이며,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횡단보도나 지하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학교 안과 밖을 분리하는 강력한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통로(Path)로서 연세대학교의 입구에서 본관까지를 지나는 백

적 성격을 가진 도시의 중대 지역(Medium-to-Large Section)이며, 지표물(Landmark)은 관찰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외부의 물리적 요소로서 건물, 상징, 표지판 등 지표의 역할을 하는 점적 요소(Point Reference)이다.

연세대학교가 통학생 중심의 문화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연세대학교 인지도 분석 결과



학교 주변에서는 통학생이 많은 특징의 반영으로서 신촌지하철역(74.2%)과 통학로로 사용되는 현대백화점(58.1%)이 많이 인지되었다. 학교 앞의 대표적인 지표물로서는 독수리빌딩(62.9%)이 지적되었고, 창천교회, 대학약국 등도 주요 지표물로 인식되었다. 주요 결절점(Node)으로 지적된 곳은 성산로와 연세로의 교차점인 연세대 정문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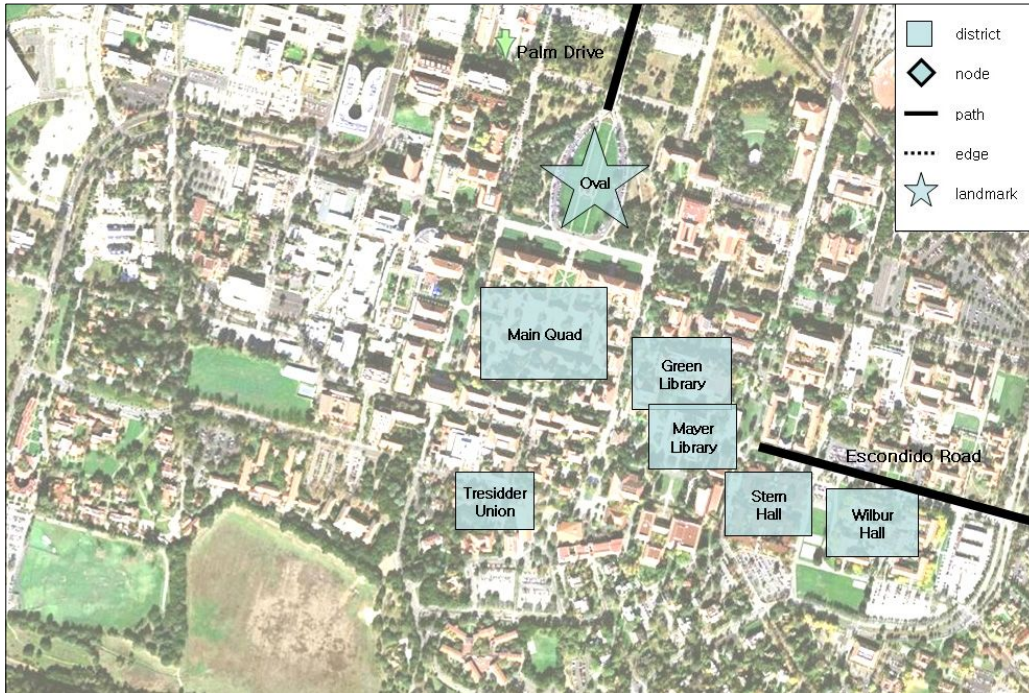
그리고 교내의 백양로 삼거리, 교외의 연세로와 명물거리길의 교차로다. 이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 절반 이상(50%)이 인지한 요소를 지도상에 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표 5>와 같이 스탠포드대학 캠퍼스의 스케치맵을 분석한 결과, 90.3%의 학생들이 메인 콰드(Main Quad)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가장 많이 인식된 건물(지구)로 판명되었다. 메인 콰드는 캠퍼스 중심에 위치한 대단위 건물로서 스탠포드대학에서 제일 처음(1891년) 만들어졌으며, 초기 콰드랭 중심의 마스터플랜에서 기초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이 건물은 교회, 강의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며, 신입생 환영식 등 주요 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바로 앞에 위치한 오벌(Oval), 팜 드라이브(Palm Drive)와 함께 메인 콰드는 스탠포드를 상징하는 주요 상징으로서 지표물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그린 도서관(Green Library, 71%), 메이어 도서관(Meyer Library, 62.9%) 등 도서관이 많이 인식되었으며, 윌버홀(Wilbur Hall, 66.1%)과 스텐홀(Stern Hall, 62.9%) 등 기숙사도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트레시더유니언(Tresidder Union, 56%)은 현재 학부 교무처가 위치하고 있는 올드유니언(Old Union, 21%)과 함께 주로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6> 스탠포드대학 인지도 분석결과



만남의 장소, 카페, 스낵바, 은행, 여행사, 휘트니스 클럽, 협동조합 등 우리나라의 학생회관 용도로 쓰이는 건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용이 잦아 높은 인지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표물이자 통로로서 팜드라이브(53.2%)와 그 끝에 위치한 넓은 녹지인 오벌(56.5%)은 캠퍼스 주 진입로에 위치하여 캠퍼스를 대표하는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로서 많은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서점(46.8%), 우체국(37.1%), 지표물로서 후버타워(Hoover Tower, 43.5%) 등도 많이 인지되었으며, 캠퍼스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로서 캠퍼스 드라이브(Campus Drive, 43.4%)는 통로이자 스탠포드대학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인지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6>은 50% 이상 인지된 요소들을 표시한 스탠포드대

학의 인지요소 분석결과다.

결국 학교를 상징하는 건물(Main Quad), 숙소, 도서관, 학생회관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어, 스탠포드대학교와 같은 전형적인 기숙사 중심 대학의 인지 패턴을 엿볼 수 있다. 즉 통로와 경계가 중심이 되는 통학생 중심 대학의 인지패턴과는 달리 기숙사 중심 대학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스케치맵 검사와 병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6>은 본 설문의 응답자들이 두 대학의 학교 캠퍼스 내에서 일반적으로 머무르는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스탠포드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8시간 이상 학교 내에 머무르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경우

<표 6> 일반적으로 하루에 캠퍼스 내에 머무르는 시간

(도수, %)

구분	연세	스탠포드
8시간 미만	32(51.6)	3(4.8)
8시간 이상	30(48.4)	59(95.2)
계	62(100.0)	62(100.0)

에는 반 정도의 학생만이 8시간 이상 학교에서 생활한다고 대답했다.

러한 차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7>에서 p-value는 각 항목에 대하여 분

<표 7> 연세대학교 남녀별, 계열별, 학년별, 체류시간별 인지 요소수 차이

구분	집단	표본수	인지요소평균	표준편차	p-value
성별	남	39	27.9	12.6	0.927
	여	23	28.2	9.3	
계열	인문	31	30.7	12.2	0.057
	자연	31	25.2	9.9	
학년	1학년	30	29.2	7.2	0.052
	2학년	17	22.6	9.4	
	3학년 이상	15	31.8	17.4	
체류시간	8시간 미만	32	26.7	12.2	0.353
	8시간 이상	30	29.4	10.5	

응답자들의 스케치맵을 분석한 결과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의 요소로서 지적된 것은 총 119개에 이른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중 일부만 응답하여, 평균 응답 요소수는 28개였다. 여기서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었고, 학교 중앙부에 위치한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이 정문 쪽에 위치한 공대학생들에 비하여 좀 더 많은 요소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내 체류시간이 길수록 학교와 그 주변에 대한 인지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며, 1학년 학생들이 2·3·4학년 학생들에 비하여 기억하는 인지요소가 많았다. 그러나 <표 7>에서 보듯이 이

산 분석을 한 결과 계산된 유의확률이다.

스탠포드대학의 경우, 응답자들의 스케치맵을 분석한 결과 스탠포드 캠퍼스의 요소로서 지적된 것은 총 157개에 이른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중 일부만 응답하여, 평균 응답 요소수는 18.0개다. <표 8>에서 보듯이, 스탠포드대학의 경우에도 역시, 남녀별, 전공계열별, 학년별, 체류시간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학년별로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지 요소수가 많아지고 있어서 연세대학교와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표 8> 스탠포드대학교 남녀별 계열별 학년별 체류시간별 응답 요소수 차이

구분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p-value
성별	남	32	18.4	9.7	0.763
	여	30	17.6	9.6	
계열	인문	20	20.0	10.6	0.188
	자연	31	18.4	9.4	
	미정	11	13.5	7.0	
학년	1학년	18	16.1	6.9	0.601
	2학년	7	17.9	11.8	
	3학년	18	17.5	9.3	
	4학년	19	20.4	11.3	
체류시간	8시간 이상	3	12.3	10.2	0.296
	8시간 미만	59	18.3	9.5	

## 2)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와 함께 수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학교 안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학생들은 본관(언더우드관, 25.8%), 도서관(11.3%), 공학원(9.7%), 언더우드 동상(9.7%) 순서로 대답하였다. 하지만 인지도 분석에서 본관(74.4%)은 공학원(87.1%), 학생회관(85.5%)에 비하여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본관은 학교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건물이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 본관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편한 장소는 도서관(17.7%)으로 나타났고, 청송대(11.3%)가 그 뒤를 이었다. 도서관의 경우 학생들이 자신의 짐을 라커 등에 보관할 수 있고, 학교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공간시간에 머물러 있기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세대를 대표하는 녹지공간인 청송대의 인지율이 낮았던(35.5%) 점을 고려하면, 청송대의 이용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송대가 학교 내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일부러 가지 않는 한 방문하기 어려운 편이며, 연세대학교가 주로 통학생 위주로 이용되어 학교 정문과 백양로 주변에 이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정지범, 2004). 한편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와 그 주변에서 가장 싫어하는 곳은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지도도 매우 높은(93.5%) 연세로를 지적하였다. 이는 연세로에 수많은 유흥, 향락 시설이 모여 있어, 지저분하고, 위험하게 느껴지며, 등하교 시에는 좁은 길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스탠포드대학의 경우, 가장 인상적인 요소로 대답한 것은 메인퀘드(Memorial Church 포함,

40.3%), 그리고 후버타워(38.7%)였다. 또한 가장 편하게 느끼는 건물들의 경우에는 메인쿼드(19.4%), 기숙사인 월버홀(19.4%), 도서관인 그린 도서관(11.3%)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메인쿼드의 역할이다. 메인쿼드는 인지도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90.3%) 인지되는 건물이며, 가장 인상적이고,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물이며, 학교 내의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광장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의실과 사무실이 위치하는 살아 있는 장소(Place)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Cohen(1985)의 지적처럼, 이러한 장소의 인식은 공간적 지식(Spatial Knowledge)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식(Social Knowledge), 그리고 그밖의 여러 관계에 의해 구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스탠포드대학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은 메이어도서관(Meyer Library, 22.6%)으로 나타났고, 그밖의 여러 강의실 및 건물들을 지적했다. 이는 대부분 그 건물들이 낡고, 지저분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을 강의하는 곳인 경우가 많았다.

## V. 결론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학은 통학생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한국 대학의 급속한 양적 성장, 절대적 공간의 부족, 대중교육으로서의 고등 교육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학습과 생활을 같이하는 기숙사 학교가 바람직한 학교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기숙사 중심의 학교가 한국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경

우에도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등을 중심으로 통학생 위주의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Turner, 1984; Barbara, 2000). 따라서 꼭 기숙사 학교가 미국을 대표하고, 통학생 중심의 학교가 한국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학생 위주의 대학을 한국 대학, 기숙사 대학을 미국 대학으로 일반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지도 분석 결과, 연세대학교를 묘사한 스케치맵은 애플야드(Appleyard)의 구분에 따르면 선적 유형(단편형, 사슬형, 가지/루프형, 망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스탠포드대학의 경우에는 공간적 유형(산재형, 모자이크형, 연결형, 패턴형)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았다. 노버그 슐츠(Norberg-Schulz, 1972)에 따르면 인간의 실존적 공간은 장소, 통로, 영역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파악이 가능하며, 각각의 실존적 공간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유목민의 실존적 공간은 무엇보다도 영역이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되며, 그 영역 안에서 통로가 자유롭게 형성되지만, 장소의 개념은 덜 발달하고, 농경문화의 경우에는 반대로 장소가 중시되며 구심적으로 닫혀진 구역 안에서 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대학 캠퍼스는 어떤 요소가 강조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생활공동체의 이상을 바탕으로 서구에서 대학을 설계할 때 주로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쿼드랭글의 활용이다. 이러한 쿼드랭글, 특히 초기의 모나스틱 쿼드랭글(Monastic Quadrangle(Turner, 1984)은 학교의 공간을 외부로부터 확실하게 분리

시켜, 내부를 보호하고,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최대한 경건한 효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탠포드대학의 메인쿼드도 바로 이런 이상을 바탕으로 최초 설계가 되었으며, 이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인지도 분석의 결과, 스탠포드 학부생들의 학교 인지방식은 노버그 슐츠의 농경문화의 장소 인지(거주 중심의 인지 양식)와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보이며, 인지의 주요 대상도,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등으로 학습-생활 공동체의 주요 구성요소들이었다. 또한 스탠포드 대학생들의 경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메인쿼드를 가장 잘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또한 대학 정신의 구현이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한국의 대학과 같은 통학생 위주의 대학에서의 공간 인식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될까? 이 경우 학교가 생활의 터전이 아니며, 외부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와 분리되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쳐가는 장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간의 인식은 통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통로를 따라 경계를 뛰어 넘는 행위(통학 행위)가 중심이 되는 공간인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가장 뚜렷이 드러난 요소로서 성산로가 연세대학교와 그 주변을 분리하는 경계로서 작용하고 있었고, 통로로서 연세로와 백양로가 가장 많이 인지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패턴은 결국 학생들의 머릿속에 통학 행위가 얼마나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많은 통학생들이 학습의 내용과 필요

정보는 통학의 편리함을 중시하여, 종종 수업 시간표를 조정하고, 원치 않는 수업을 수강하거나, 통학로에서 가까운 강의실만을 선택하는 등 파행적인 학교생활을 하곤 한다. 미국의 통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바라(Babara, 2000)는 통학생들은 학교에서 쉽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학교 외부에서 찾고, 아르바이트, 학원, 가족, 친구 등 인간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노력한다고 주장한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공간 인지가 주로 통학로와 통학로에 가까운 곳에 몰려 있다는 것은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인지도 분석을 통하여 어떤 공간적 문제 해결(Spatial Problem Solving)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연세대학교의 경우, 공간적 인지가 정문 부근의 통학로와 그 주변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병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주통학로인 연세로 주변이 지적되었다. 즉, 연세대학교 캠퍼스는 학생들에게 정문과 통학로 중심으로 인지되고, 이용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느끼는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연세로를 중심으로 한 통학로에 대한 불만과 청송대 등 연세대학교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공간 활용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통학로의 개발을 통한 교내 공간 사용의 효율화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정지범, 2004).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의 통학생 중심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서구의 우수 대학들은, 학

## 참고문헌

생들에게 항상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충분한 기숙사 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캠퍼스 면적이 넓어 공간적 여유가 있는 대학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도심의 대학들인 경우에도, 주변의 주택지를 활용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 안과 밖의 경계를 뚜렷이 하지 않고, 하나의 도시 전체를 캠퍼스로 활용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도 학내 구성원들 사이의 밀접한 커뮤니티의 구축, 학문적 가치관의 공유, 단순한 직업 교육이 아닌 개성과 문화를 가진 대학 정신의 창출을 위하여 학습과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완결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송도 캠퍼스를 활용한 레지덴셜 캠퍼스(Residential Campus)의 구축 계획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라도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문제는 기숙사 중심 학교의 수립이라는 대책만으로는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과 같이 취학 연령 인구가 줄고, 노령 인구가 늘어가는 인구통계학적 구조를 가진 대학들은 장기적으로 통학생에 대한 배려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미 대학 신입생들의 연령과 사회적 배경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많은 직장인들이 다시 대학에서 재교육 기회를 찾곤 한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대안으로는 기숙사를 확충하여 학습-생활 공동체 구성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의 새로운 통학생들을 위하여 학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쾌적하고, 균형적인 캠퍼스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남정걸. 1995. "미래 대학의 변화와 대학시설의 적합성".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2) : pp7-15.
- 연세대학교. 2005. (연세춘추 70년 사진으로 본) 연세의 역사 : 연세대학교 창립 120주년 기념. 서울 : 연세대학교.
- 윤용우·김영욱·박영기. 2003. "공간인식에 공간깊이와 거리의 영향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3권(1) : pp171-174.
- 이우상·정재용. 2005. "Kevin Lynch의 대학 캠퍼스 주변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 - 신촌, 연세대학교 주변 가로 환경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 pp 45-61.
- 정지범·김태현·김홍규. 2004. "인지도를 이용한 대학교 캠퍼스의 이미지 분석". 교육시설 제11(5) : pp5-13.
- Barbara J. 2000. "Why involve commuter students in learning?".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 p109.
- Blaut, J. M. 1999. "Maps and spaces". *The Professional Geographer* 51 : pp510-515.
- Downs, R. M. & Stea, D. 1973. *Image and Environment*. Chicago, IL : Aldine.
- Golledge, R. G., & Stimson, R. J. 1997. *Spatial behavior: A geographic perspective*. New York : Guilford.
- Jutla, R. S. 2000. "Visual image of the city: tourists' versus residents' perception of Simla, a hill station in northern India". *Tourism Geographies* 2(4) : pp 404-420.
- Kaplan, S. & Kaplan, R. 1982. *Cognition and environment: Functioning in an uncertain world*. New York : Praeger.
- Kitchin, R. M. 1994. "Cognitive maps: what are they and why study them?".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4 : pp1-19.
- Norberg-Schulz, C. 1972. *Existence, Space & Architecture*. London : Studio Vista.
- Saarinen, T. F. 1976. *Environmental Planning: Perception and behavior*.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Sternberg, R. J. 2003. *Cognitive Psychology*. Belmont, CA : Wadsworth. Thomson Learning
- Turner. 1984. *P. V. Campus*. MIT Press

Zmudzinska-Nowak, M. 2003. "Searching for Legible City Form: Kevin Lynch' Theory in Contemporary Perspective". *Journal of Urban Technology*. Vol 10(3) : pp19-39.

- 
- 논문 접수일 : 2006. 10. 9
  - 심사 시작일 : 2006. 10. 12
  - 심사 완료일 : 2006. 11. 22

K C I

---

## ABSTRACTS

---

###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University Campus Images between Korea and America Using Cognitive Maps**

**Ji-Bum Chung** Academic Advisor, University College, Yonsei University (Primary Author)  
**Hong-Kyu Kim**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 Key words: Image, Cognitive Map, University Campus

Korean universities are mostly developed for commuter students, compared to American universities which are, in many cases, residential universities.

In this study, differences between the images of Korean commuters'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and American residential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CA, USA, will be compared.

For this purpose, the well-known Kevin Lynch's(1960) cognitive mapping methods are used to figure out the images of university campus and its surrounding areas which are perceived by their current students.

Major findings are that the image of Korean university is usually based on sequential structure, while the image of American university is based on spatial structure. This difference is mainly due to the students' commuting patterns and the university's master plan which reflects the university's educational ideals.

к с і